전북교육청 '숲놀이터' 조성 본격

전주 문정초 옆 부지 3만9246㎡규모, 5억6500만원 들여… TF팀 현지 방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숲놀이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연과 연계한 아동과 청소년 놀이공간을 위해 전주문정초, 전주문정유치원(가칭) 옆 부지 39,246㎡을 마련하고, 총 사업비 약 5억6,500만원을 들여 '도담도담 숲놀이터(가칭)'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숲놀이터 조성 실행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25일에는 연구용역 관계자와 숲놀이터 TF팀이 함께 현지를 방문했다.

숲놀이터는 숲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소재로 공룡알 둥지, 초식공룡 놀이터, 모험놀이터, 익룡놀이터, 공룡 트리하우스 등 주제별로 특화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배움, 놀이, 체험, 사색, 소통,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놀이터를 조성하고, 숲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숲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만나고, 발견하고, 하나되는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면 생명존중과 환경에 대한 보존의식도 함께 기를 수 있어 자연친화적인 생태감수성도 기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담도담 숲놀이터(가칭)는 2021년 10월에 개장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원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최근까지 무역업 등 사업체를 운영한 유성훈(53) 씨가 모교에 2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증했다.

원광대 동문 유성훈씨, 2억원 상당 마스크 기증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원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최근까지 무역업 등 사업체를 운영한 유성훈(53) 씨가 모교에 2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증했다.

마스크 기증은 지난 21일 유성훈 씨가 총장실을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21일부터 3회에 걸쳐 KF94 마스크 1만장과 국내산 3중 SB필터 덴탈마스크 약 20만장이 대학에 전달됐다.

유씨는 "얼마 전부터 모교에 마스크를 기증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여건상 이제야 준비된 마스크를 기증하게 됐다"며,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 기증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히면서 "기회가 되면 추후에 더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유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박맹수 총장은 "거액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선뜻 내주신 귀한 정성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보내주신 정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원광대 원불교학과 졸업 후 원불교 교무를 역임하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 온 유성훈 씨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원광대 외에도 원불교 관련 기관에 마스크 수십 만 장을 기증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용규)가 26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을 베풀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김동원 총장과 이용규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김윤덕·신영대· 이원택·진성준·이상직 당선자 등이 참석해 지역과 모교 발전을 다짐했다.

7명 국회 입성… "지역과 모교 발전 다짐"

전북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용규)가 26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을 베풀었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대 학부 출신 동문으로 김윤덕(상대 회계학과·전주 갑) 당선자를 비롯해 신영대(상대 경영학과·군산), 이원택(공대 화학공업공학과·김제부안), 진성준(법대 법학과·서울강서을)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일반대학원(법학 전공)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박사과정을 마친 안호영(완진무장) 당선자와 최고위과정을 마친 김성주(전주 병)·이상직(전주 을) 당선자도 전북대 동문으로서 당당히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축하연에는 김동원 총장과 이용규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김윤덕·신영대· 이원택·진성준·이상직 당선자 등이 참석해 지역과 모교 발전을 다짐했다.

이용규 총동창회장은 "우리대학 동문들이 7명이나 국회에 입성한 것은 모교의 자랑이자 희망"이라며 "자랑스런 전북대 동문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과 모교 발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신임 산학협력단장에 최승훈 교수 위촉

전주비전대학교(홍순직 총장)는 신임 산학협력단장에 최승훈 기계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승훈 교수는 기계과 학과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산업기술연구소장, 현장실습센터장등을 역임하면서 전주비전대학교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국책사업프로젝트의 기획 등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최승훈 신임단장은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2019년 전라북도 교육청기술자문위원으로 활약했다.

최승훈 신임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그 기능과 역할이 현재 너무 중요하다"며 "기술 이전, 연구비 확보 등 산·학 협력 관련 사업은 등록금 동결로 말미암아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에 새로운 수익 창구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전주비전대학교(홍순직 총장·사진 왼쪽)는 신임 산학협력단장에 최승훈 기계과 교수를 위촉했다.

또"과거 학문 연구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교수역량과 달리 이제는 취업률,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산·학 협력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찾아가는 온라인 해외취업설명회' 성료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온라인 해외취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취업 정보를 얻기 힘들어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 지원 사업 전반과 주요 국가별 해외취업 전략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해외취업 준비가 막막했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돼 다행이었다"며 "온라인 강의여서 가능한 시간에 교육을 들을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재학생 및 도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를 3년 이상 지원해 왔다.

홍성덕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에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설명회 및 아카데미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헌혈 동참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이 헌혈 수급난 해결을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나섰다.

사랑의 헌혈 운동은 단체헌혈 및 개인 헌혈이 줄어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로 떨어진 상황에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사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갑식 원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